



한마음선원 태국지원이 개원 2개월만에 교민 불자들을 하나로 묶어내며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한마음 선원 태국지원 교포불자 신행공간 정착

동남아시아 포교를 위해 지난 4월 25일 태국 방콕에 개원한 한마음선원 태국지원(지인장 혜단)이 개인 두달여를 맞으며, 현지 교포 불자들의 신행포교공간으로서 정착해 가고 있다.

“현재 매주 일요일 태국 각 지역에서 찾아오는 50여명의 교민불자들과 대행스님의 비디오법문을 접하며, 마음관하는 법을 함께 공부하고 있다”고 지인장 혜단스님은 말했다. 스님은 “지난 5월 22일 부처님 오신날에는 연등으로 장엄하고, 봉축 법요식도 거행해 교민불자들과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다”고.

태국지원은 지난 2월초 현지 교민불자 20여명으로 구성된 재태한인불자회가 꾸러지면서 태국에 한국절을 만들자는 원력으로 추진돼, 지난 3월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주지 혜인스님 초청법회때 한마음선원 태국지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4월 25일 대행스님 초청 법회를 갖고 정식에는 10여개의 한국교회와 들어서 있지만 한국 절이 생긴 것은 한마음선원이 처음이다.

태국의 가정집을 세어 마련한 조그만 법당이지만 낯선 태국 땅에서 한국 불교의 전통과 문화, 사상을 전하고, 이를 통해 교민불자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는 것이다.

“대행 스님님 다녀가신후 많은 이들이 많은 감화를 받아 더 열심히 공부에 임하고 있다”고 전하는 혜단스님은 “자기 부처를 믿으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배우고, 방콕 지원을 기점으로 절이 없어 마땅한 신행공간을 못하고 있는 판타의 교민불자들과도 자주 만나 큰 스님 가르침을 나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전북불교 자원봉사단 발대

7백여명 참여... 복지·청소년 선도 활동

자원봉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불교계에 각계각층의 불자 7백여명이 참여한 전북불교자원봉사단 발대식이 30일 오후 1시 전북불교회관 법당에서 열렸다. 이날 참가하는 사찰 및 단체는 금산사를 비롯한 12개 사찰과 중·고·대학생 불자회 청년회 등 10개 단체로 사회복지를 비롯하여 환경보전 청소년교육 범죄예방 재난구조 문화 스포츠 등 전 사회영역에서 활동할 계획이라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립발대식 및 총회에 이어 '자원봉사의 역할론'을 종실스님(청교련 대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이 강연할 예정이다.

창립준비위원장 덕산스님(금산사 총무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불교가 지역사회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이를위해 각 사찰과 단체가 개별적으로 전개 해온 자원봉사모임을 전북불교연합회 차원으로 조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협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016-228-2358

영광군 백제불교 도래지 성역화

기독교계 반발...주민은 찬성

“특정종교위한 행사”에 “국책사업 일뿐”

전남도와 영광군이 관광전남 만들기를 서언하며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을 펼치는 것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기독교계가 특정종교만을 위한 행사라며 반발해 지역사회의 반목을 사고 있다.

영광군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역사사상과 장소성을 구체화 하기위해 총 92억원(불교계 민자유치 35억원 포함)을 투입, 진내리 일대 1만3천 700여평에 200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영광군의 민자유치 계획에 따라 불교계도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사를 정립키 위해 법당포에 18m 높이의 마라나타상을 건립키르 하고, 불상건립추진위(위원장 정결·화엄사 주지)를 구성하여 백암사 다정스님, 대홍사 보선스님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광군기독교연합회는 16일 영광읍교회에서 ‘불교 성역화 사업 저지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열었다. 이들은 8일에도 긴급 교역자회의에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성역화사업 저지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주시 기독교교단협의회도 최근 열린 임시 임원회에서 영광군의 관광명소화사업 반대운동에 동참할것을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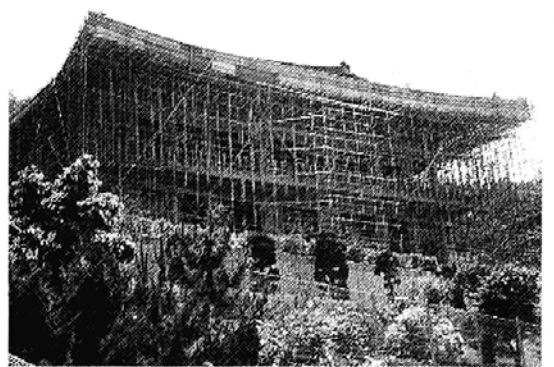
영광군의 한 관계자는 “성역화 사업은 전남도가 97년부터 5년계획으로 ‘건강한 고장만들기’를 주창하며 총 3조6천4백11억원을 투자하는 전남 3대권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특정종교와는 무관한 국책사업이다”며 “기독교계의 반대에 맞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으며 이미 시작돼 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는 인도스님 마라나타가 384년 백제에 들어와 불교를 처음 전파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서해안관광시대에 대비 관광거점화를 위해 9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영광군 법당포에 주민 휴게실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우리절 불사 삼광사 명부전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부산 삼광사 명부전.

선망부모 명복비는 추모공간

총건평 264평...공정 50% 후손 효사상 선양 기대

자신의 본성을 밝혀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다.

나를 있게 해준 부모님과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길수 있는 불사가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에서 한창 진행중이다. 돌아가신 선망 부모님과 조상님의 위패를 모시고 명복을 빌어드리는 명부전 건립 불사는 96년 2월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지난 6월 9일 기와를 올리는 불사까지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명부전은 총건평 264평의 2층 건물로 주방, 식당, 법당을 갖추고 아미타불과 지장보살, 시왕을 조성해 모신다.

명부전 불사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영가를 천도하는 일차적인 목적보다는 후손들과 남겨진 이들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차적인 의미로 더욱 값지게 와 담고 있다. 이 불사에 동참하는 모든 대중들은 부모님을 위해 정성을 다하면서 현재의 자신의 위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부모님과 조상님에 대한 은혜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은

삼광사 명부전 불사는 바로이런 백락에 닿아 있는 불사로서의 의미가 더욱 깊다. 명부전에는 2.4m의 옥으로 조성된 지장보살과 1.8m 크기의 시왕이 은행나무로 조성된다. 크기가 고른 은행나무를 고르고 옥을 구하는 과정이 어려움이 따랐지만 스님과 대중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져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재무국장 거효스님은 “명부전은 선망부모의 은혜를 기려 자신과 후손까지 함께 마음으로 이어주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명부전 불사를 통해 모든 생명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보시행을 펼치는 불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불사의 의미를 전했다.

삼광사는 명부전이 완공되면 그 옆에 아미타전을 다시 지어 모든 불자들이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마음을 되찾아 마음의 편안을 얻고 그 평정심이 사회 전체에 퍼질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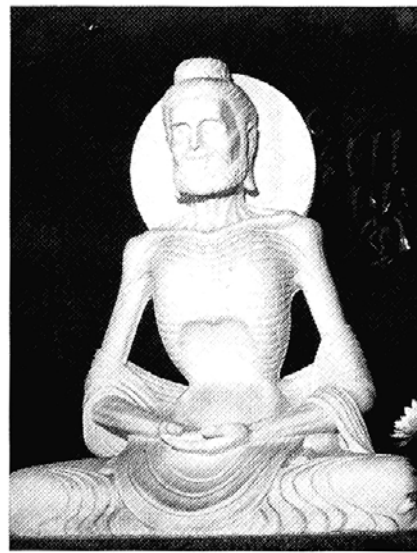
부처님 '고행상' 봉안

와우정사 한국 최초...대각전도 준공

대한불교 열반종 총본산 와우정사(원장 김해근)는 20일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석가모니 부처님 고행상 봉안식과 대각전 준공식을 가졌다. 서암스님(조계종 전 종장)이 증명법주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도암 대승종 종장, 용화 임재종 종장 등 각 종단의 대표들과 신도, 스리랑카·태국·헝가리·러시아 대사, 독일 부대사 등 1천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봉안된 석가모니 부처님 고행상은 중국에서 수입된 한백옥으로 7년동안 조성되었으며 뼈와 핏줄이 드러나는 앙상한 모습과 더부룩한 수염, 우주의 실상을 깨닫는 형형한 눈빛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미혹으로부터 해탈하여 대자유인이 된 부처님의 6년간 고행하여 대각에 이른 찰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열반종 김해근 총무원장은 “고행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위해 석가모니부처님께서 겪으신 고행과 그 인내, 사상을 되새겨 부처님 뒤를 따르는 참다운 불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숙 기자(gsllee@buddhopia.com)



한백옥으로 조성된 석가모니 부처님 고행상. 용인 와우정사에 봉안됐다.

“복지 전산망 통일 시기상조”

조계종 복지포럼서 제기

‘교계 사회복지시설의 통일된 전산망 구축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만큼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24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 이사 고산) 주최로 재단 강의를 들으며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전산망 구축방안’을 주제로 열린 불교복지포럼은 이날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교계 복지관계자 30여명이 토론을 벌인 이날 포럼에서 발제토론에 나선 조석영씨(강북장애인복지관 사업부장)는 “정보공공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불교복지가 아직 일정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은 시점에서 전산망 구축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시기상조를 내세웠다.

김금환씨(승가원 전산연구원)는 각 사찰마다 특화된 부분을 표준화할 필요는 없으며 예산확보도 의문시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조계종 복지재단 정보지원센터와 승가원의 홈페이지를 확대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최영희씨(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산담당)는 “현재 전국사회복지공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

를 구상중”이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전산망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선 복지관계자들도 “지역별·사회복지종별로 다양화 돼있는 상태에서 표준화된 전산관리프로그램은 무리”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영우 기자
대구 BBS 사장기 촉구대회

2002년 월드컵유치를 기념하고 사찰 및 신행단체간 우의를 돈독히 하는 대구불교방송 사장기촉구대회가 13일부터 20일까지 능인교와 심인교운동장에서 열렸다. 대구지역 신행단체 18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우승은 국민회의 새연동회 대구지부팀이 차지했다. 이윤호 기자

BBS 불교방송 후원회

불자 여러분의 정성과 애정 어린 후원으로 불교방송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은행지로 : 8003478 국민은행 : 827-25-0020-943
농협 : 069-01-238223 외환은행 : 189-13-03929-3

예금주 : 불교방송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전화 : 02-706-5560-1)

손해보험 대리점 설계사 모집

당사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와 제휴하는 총괄법인으로 불교문화 진흥 및 불자님들의 복지를 위한 한불복지재단(가칭) 설립에 참여하실 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격
25세 이상 고졸이상의 남·녀
기존 활동중인 대리점 사장님, 설계사

취급 업무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단체보험, 대출등

특전
· 최고의 수수료(높은 마진)
· 불교계 관련 보험 업무지원
· 성지 순례 부여
· 사무실 및 집기 비용 지원
· 전담 직원 관리 시스템

대표 02)392-6233-6 / 02)737-5925
Fax 02)313-1301
H.P. 011)260-4454

주최 : 주식회사 태고 대표이사 김태균
후원 :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 명예회장 김철희 한불복지재단(가칭) 추진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 太古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63-1 삼창 B/D 6층
*전환시umen 정성을 다하여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솔잎식초

★ 발명특허 획득 제 065147호 ★

식초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초의 영양가는 원료나 제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솔잎식초는,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진 소나무(赤松)에서 채취한 토종솔잎만을 전통용기항아리에 담아 오랫동안 순수 자연발효공법으로 숙성시켰으며, 깊고 은은한 맛과 향은 식초를 처음 대하시는 분도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독특한 제품입니다.

◎제품명: 솔잎양조식초 ◎영업허가: 여주제20호
◎원료명: 솔잎 100% ◎총산도: 4° ◎용량: 1.5/ ◎온라인 : 국민은행 023-05-0035-409 김성경

◆ 제조원: 삼송식품
◆ 문의: 솔잎건강연구소
휴대폰 011-389-9595, 전화 (02)2296-5151

『오가피를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견디게 하고 수(壽)를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久服即輕身耐老 延年不老) - 동의보감』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C 9시 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의 보도(“오가피 알고봤더니 금가피”)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8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복도중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가 담긴 오가피에 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제품: 오가피 추출액, 오가피 열매 발효액, 오가피 목욕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복오가피직판장
■ 전화: 0333-682-5034/3
■ 인터넷 홈페이지: http://myhomie.netgo.com/baegh/

불·교·사·찰·안·내

간판 시공

■ 규격
- 종로구 80cm x 40cm
- 그외 지역 110cm x 55cm
- 개인소유지 : 제한없음

■ 재질 스텐레스

■ 허가 대행 및 A/S

취급 품목: 사찰 안내간판, 사찰 선력판, 전주송 간판, 게시판, 연등전기배선

* 1차 설치되어 있는 기존간판은 정비, 자진철거 해드리겠습니다.
* 지방출장 가능

신성기획
TEL: 02)3141-3789
02)332-3786
H.P: 016)336-3786